

현실과 이상의 간극 메우기

-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을 중심으로 -

손미란*·노상래**

- I. 서론
- II. 신문연재소설의 '일상성'과 '시사성'
- III. 『사랑의 수족관』에서 '현대청년'이 가지는 의미
- IV. '근대 자본'의 비판과 '몸'의 상관성
- V. 결론

【국문초록】

김남천의 신문연재소설 『사랑의 수족관』은 '전환기'라는 시대적 의미 위에서 태어난 작품으로, 김남천이 개진하고자 했던 가능성의 공간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통속소설로 치부되기 쉬웠던 이 작품이 최근 들어 새로운 시각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제가 '일상성'의 문제이다.

이때 『사랑의 수족관』의 남자 주인공 '김광호'는 중일전쟁 이후 김남천의 격변하는 심정, 균열하는 머뭇거림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과 현실이란 결코 만날 수 없는 지점처럼 보이지만 '전환기'라는 공간은 이 둘의 간극을 메울

*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해 주었다. 이전의 논의들처럼 형 ‘김광준’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인 ‘김광호’의 시대를 그린 작품이라 볼 수 없는 무수한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균열들이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사랑의 수족관』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기도 하다.

근대를 지향하면서도 근대를 지양해야하는 이중적인 공간에서 김남천이 비판했던 근대는 ‘자본의 근대’였다. 그리고 김남천은 작품 속에서 ‘근대 자본’을 등장인물의 ‘몸’을 통해서 자주 형상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의 ‘몸’이 ‘건강성’과 ‘퇴폐성’으로 양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으로 양분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일상성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때, 일상생활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던 이들의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자의 일상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일상은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일상이 문제였다. 이는 발자크의 영향으로 자본의 퇴폐성을 관찰·고발하려고 했던 김남천이 작품 속에서 절대 평범하다고는 볼 수 없는 1%의 삶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일상성, 일상생활, 몸, 섹슈얼리티, 건강성, 퇴폐성, 근대 자본

I. 서론

1937년 7월에 일어나 41년까지 지속된 중일전쟁은 조선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이 다른 나라와 벌인 최초의 전면전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결정적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제는 오히려 전선에서 승승장구하며 중국 대륙을 장악해 나갔고, 전쟁에서 일본이 보여준 힘은 조선의 사상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적 근대화를 폐기하고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구축한다는 명분과 함께 외친 ‘동아협동체’ 및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슬로건은 “과거의 시대로서 떨어져 가고 있는 「근대」와, 그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시대인 「현대」를 변별하는 담론” 유포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¹⁾ 또한 이는 당시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던 위기의 징후들과 결부되면서 단순한 체제 이데올로기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후반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1년까지의 시기가 갖는 시대적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김남천의 작품도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 먼 거리에 있지 않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김남천의 대표적인 신문연재 장편소설 『사랑의 수족관』(『조선일보』, 1939.8.1~1940.3.3)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속소설로 치부되기 쉬웠던 이 작품은 근래에 들어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²⁾ 그 대표적

1) 차승기, 「「근대의 위기」와 시간-공간 정치학-교토학과 역사철학자들과 서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권 2호, 2003, 10, pp.241~242.

2) 물론 이 전에도 『사랑의 수족관』을 새롭게 보려고 한 시도들은 꾸준히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김외곤의 「사상(思想) 없는 시대의 왜곡된 인간 군상-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論」(정호용 외, 『장편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 열음사, 1993), 강진호의 「통속소설, 차선의 의미-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론」(『한국근대문학 작가연구』, 깊은샘, 1996)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강진호는 1930년대 후반, 파시즘으로 치달아가는 극한의 상황에서 새로운 창작방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남천을 새롭게 평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강진호는 결국 이전의 논의의 범위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남천이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서사의 기본원리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권선징악의 주제를 갖게 되었고, 계몽적 제재 역시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결론 맺고

인 주제가 바로 ‘일상성’의 문제이다.³⁾

와다 도모미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사랑의 수족관』에 등장하는 배경은 연재되는 낱짜와 실제 낱짜가 거의 일치할 정도로 ‘현재성’을 띠고 있다. “시간의 최소단위(the minimal temporal unity)로서의 일상은 역사의 핵을 보존한 일상이다. 역사가 경험되고 변화하는 곳은 바로 (지금) 여기이지, 역사를 역사의식의 전개로 설명하는 서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의식 내에서가 아니다.”⁴⁾ 이 점은 작품에 등장하는 일상들이 단순한 ‘일상’이 아닌 시대를 담지한 시공간의 일상임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일상’과 ‘신문’이라는 저널이 가지는 연관성은 30년대 후반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대호황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대중의 기호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사성’을 담지한 ‘일상’의 문제이다. 일상성

있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김외곤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한계점이다. 하지만 김남천에게 있어서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 요약되는 ‘통속’의 문제는 결코 간단히 바라볼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김남천의 새로운 창작방법이 ‘저널리즘’의 일상성과 시사성으로 요약된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 와다 도모미(和田とも美)의 「김남천의 취재원(取材源)에 관한 일고찰」(『관악어문 연구』 2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8)과 「김남천 장편소설론-신문연재소설, 그 가능성의 추구-」(『조선학보』 167집, 1998, 4) 이후, ‘일상성’은 김남천의 장편소설을 연구하는 데 있어 주요한 관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최혜림의 「『사랑의 수족관』에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고찰」(『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을 들 수 있다. 최혜림은 “1930년과 1940년이라는 특정 시기의 시대적 지평 위에서 작가의 ‘관찰’을 통해 변화하는 일상을 ‘규율과 결핍’이라는 시대적 징후로 읽어내고 이를 위계화된 경성의 일상공간에 재현해낸 작품”으로 파악하면서 당대의 소설이 성취하지 못했던 ‘시사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시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근대자본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
- 4)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p.34.

을 통해 우리는 ‘겉보기에 무의미한 듯한 사실들 속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잡아내고, 그 사실들을 잘 정돈함으로써 이 사회의 정의를 내리고 또 이 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시사성’을 담지한 ‘일상’의 문제, 이것을 통해 김남천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가? 기억해야 할 점은 현재는 항상 오늘이라는 점이며, 오늘이라는 현재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일상이 미래를 바라 볼 가능성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는 『사랑의 수족관』을 통해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이 개진하고자 했던 가능성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신문연재소설의 ‘일상성’과 ‘시사성’

30년대 후반 출판시장은 점진적인 과시즘의 대두와 언론통제의 강화 속에서도 양적·질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한 시기였다. 이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불기 시작한 소설 선집·전집·문고 발간 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⁶⁾ 장편전집에 묶인 작품 외에도 신문연재 소설을 단행본으로 낸 작품들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 『사랑의 수족관』(『인문사』, 1940)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⁷⁾ 상황이 이렇고 보니 이러한 호황이 조선의 “출판사업이 근대적으로 기업화”⁸⁾한 데서 비롯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대중소설은 많은 작가들

5)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p.68.

6)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pp.308~314, 강옥희, 「30년대 후반 대중소설의 출판」, 『민족문화사연구』 13, 1998, pp.366~367 참고.

7) 「출판부 소식」, 『인문평론』, 1941, 1, p.299 참고.

8) 백철, 「출판계」, 『소화 14년 조선문예연감』, 인문사, 1939, p.43.

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실 당시의 문예물 호황은 일제의 사상통제로 인해 정치·경제·철학 관련 도서가 출판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반대급부의 효과도 있었다. 물론 이태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이 ‘어쩔 수 없이’ 대중소설을 썼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태준이 ‘쓰는 소설’과 ‘씨키는 소설’로 소설쓰기를 분류한 것은 당대 상황을 짐작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설명이다.⁹⁾

1936년 ‘언론검열표준’의 발표와 더불어 정치, 사상, 경제 등의 서적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작가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문에 연재하는 장편 소설들은 모두 예술성·작품성과는 거리가 먼 대중·통속소설로 치부되었다. 이태준은 이러한 이유로 장편소설로는 ‘순수한 문학’은 쓸 수 없으며, ‘연재 조건에 걸리지 않는, 단편소설과 전작소설’에서나 순수한 문학이 발육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김남천은 신문연재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찍이 ‘로만개조론’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김남천은 조선적 장편소설의 특성을 ‘저널리즘과 문예와의 교섭’에서 찾은 바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이 저널리즘 가운데서도 특히 대(大)신문에 의하여만 발표되어 왔다는 사실’¹⁰⁾에 주목한다. 당시는 ‘그것을 쓰는 작가 자신도 단편보다 장편을 하위에 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남천은 장편소설만큼 ‘전형적 전황과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는 데 적합한 장르도 없다고 보았고, 바로 여기서 그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발생한다.

9) 이태준, 「조선의 소설들」, 『무서록』, 깊은샘, 1994, p.68.

10)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 고찰」, 『동아일보』, 1937. 10. 20,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pp.277~278(앞으로는 권수와 면수만 표기)

왜냐하면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하여서 이것을 신문소설이라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며 통속적 대중적이란 그 말 자체로서는 고급예술이 이를 배격하여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에는 신문소설을 제하고는 장편소설이란 것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알기 쉽게 쓰인 소설, 대중에게 한결같이 읽히는 소설, 신문에 게재된 소설 -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소설을 비예술적인 것으로 단정할 건덕지가 되지 않을 줄로 나는 생각한다.¹¹⁾

위와 같은 김남천의 시각은 당시 문단에 팽배한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통념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상이다. ‘대중문화의 시대는 건강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시대’¹²⁾이기도 하지만, 김남천은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에 눈을 두고 있었다. 김남천에게 우선 당면한 과제는 전환기에 합당한 문학의 길을 정립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에 대한 인식도 과생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땅의 로만은 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또한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¹³⁾라는 김남천의 판단은 의미심장하다.

저널리즘이 대중성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김남천도 언급하고 있듯이, 저널리즘은 ‘상품인 반면에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상층기구에 속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회현상’이란 중요한 일면’도 가지고 있다. 김남천은 이러한 특성을 ‘저널리즘의 본질’로 보았고, 구체적으로는 저널리즘이 가진 비평과 계몽의 기능에 주목했다. 물론 ‘아카데미즘’에 비하면 일상적이고 시사적인 성격을 띤 ‘저널리즘’은 비속하고 속류적인 것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김남천은 ‘저널리즘’을 통

11) 위의 글, p.283.

12) 나병철, 「서사와 대중성」, 『대중서사연구』 제9호, 대중서사학회, 2003, 6, p.175.

13)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 고찰」, p.288.

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상성’과 ‘시사성’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특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일찍이 베네딕트 앤더슨이 간파했듯이 신문이 가지는 상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신문에 있는 맨 위의 낱씨는 신문의 본질적인 관련, 즉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균일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도 있다.¹⁴⁾ 즉 이러한 ‘신문’의 특성과 ‘소설’이 결합되어 독자들에게 ‘같은 달력상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¹⁵⁾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의 이러한 속성을 생각했을 때, 김남천의 판단은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1920년대 김기진¹⁶⁾에 의해 ‘대중소설론’이 많은 관심을 받은 이후로 30년대 중반 이후 더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창작을 통해 실험을 한 작가는 김남천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 진영에서 임화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통속성’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통속소설론」¹⁷⁾이라는 글은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이 ‘대중소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준다. ‘통속성’, 즉 ‘대중성’은 뛰어넘어야 할 것이었고 ‘본격소설’로 나아가기 전에 거쳐야 할 여정일 뿐이다.

임화에게 문학과 저널리즘의 관계성은 정치적인 데 있을 뿐이었다. 저널리즘에 실리는 문학은 ‘보도될 가치가 있는 문학’과

14)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수,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p.59.

15) 위의 글, p.59.

16) 김기진, 「통소속설 소고」, 『조선일보』, 1928. 11. pp.9~20 및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 4. pp.14~20 참고.

17) 임 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원래 이 글의 원제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동아일보』, 1938. 11. 17)이었다.

‘보도될 가치 없는 문학’으로 양분 될 뿐이며, “문학과 저널리즘과의 관계는 시사성의 관계이고, 더 나가선 정치와 문학과의 관계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를 압축해 보여준다.¹⁸⁾ 즉 임화의 시각은 ‘경향문학’을 최고의 지위에 놓고 ‘대중소설’을 그 대척점에 놓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를 충분히 가진다.

김남천은 『사랑의 수족관』을 창작하기 전에 「길 우에서」(『문장』, 1939. 7)라는 단편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K기사는 직업과 성격 등에서 『사랑의 수족관』의 주인공 김광호와 아주 유사하다. 직업이 건축기사라는 점, 가까운 과거에 사상가였던 형을 잃었다는 점 등이 바로 그러한데, 인도주의에 대한 회의감과 직분윤리에 대한 착실성까지 비슷하다. 문제는 작품 속에서 화자가 “길 우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청년들의 세상에 대하는 근본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다.”¹⁹⁾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는 청년들의 생각과 삶의 양태를 알아보아야겠다는 김남천의 의지로 파악될 수 있는 대목으로, 그리고 얼마 후 『사랑의 수족관』이 연재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당시 청년들의 ‘세상에 대하는 근본태도’를 궁구해보고자 한 작품임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랑의 수족관』이 연재된 『조선일보』 광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18) 임 화, 「문학과 저널리즘과의 교섭」, 『사해공론』, 1938. 6. 여기서는 조성면 편,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에 실린 것을 텍스트로 삼는다. pp.296~300 참고.

19) 김남천, 「길 우에서」,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4, 태학사, 1988, p.236.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현대를 이해하고 현대와 투쟁하는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 삼십 전후의 젊은이들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 감격 흥분 갈등 초조 이러한 현대적 성격을 숨김없이 냉정하게 가혹하게 그리어 보자는 것입니다.²⁰⁾ (강조 : 인용자)

김남천이 ‘모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청년’의 ‘세상에 대하는 근본태도’에 대해서 ‘숨김없이 냉정하게 가혹하게 그리어 보’기 위해서 라는 발언에서도 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문학의 대상은 도덕 ‘모탈’이다”²¹⁾라는 생각은 창작방법이 아무리 변해도 김남천에게 있어 변하지 않는 모토였다. 그리고 ‘모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풍속’이었고, ‘풍속’은 ‘일상’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일상의 재현은 당시 30년대 후반 조선의 풍속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균형적이지 못한 위계화된 일상도 조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김남천의 3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그 인물군(群)들이 아주 다양하다. ‘대재벌, 조선 굴지의 은행 지배인, 이들의 아내와 자식들, 이들의 회사에 취직하여 봉급생활을 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 ‘카페’의 여급들과 기생들, 그들의 동생이거나 친척인 가난한 점원들 혹은 식당 종업원들,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들 등’²²⁾ 당대 식민지 조선의 최상위 계층에서부터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혹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기생(寄生)적 존재들에 이르기까지 김남천이 그려내는 인물 유형은 수직적 계급구조와 수평적 공간영

20) 「현대의 성격을 진일한 김남천 작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 7. 31.

21) 김남천, 「도덕의 문학적 파악」, 『조선일보』, 1938. 3. 12, 1, p.349.

22) 박여령, 「김남천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44.

역 모두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양태로 삶을 구현해 보이는 인물군들을 통해 김남천은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는 조선문학이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가던 시기에 ‘대중·통속성’이라는 말로 일축되기 쉬웠던 장편소설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남천이 창작 초기부터 일관되게 지니고 있던 ‘리얼리즘 정신’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리얼리즘 정신’은 그의 비판정신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심축이었다. 김남천은 자신의 모랄과 풍속에 대한 추구가 리얼리즘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단언한다. “... 나는 만인의 앞에서 단언하되 리얼리즘의 일보 전진을 꾀하는 외에 나의 본의는 있지 아니하다.”²³⁾

그러나 이러한 리얼리스트적인 면모는 오히려 『사랑의 수족관』을 통속소설로 떨어진 작품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런 비판의 기저에는 『사랑의 수족관』의 서사 중심축이 연애구도라는 데 있다. 1930년대 대표적인 통속소설로 통하고 있는 김말봉의 『찔레꽃』과 박계주의 『순애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작품들은 모두 연애물이었고, 삼각구도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다. 특히 작품 말미를 두 사람의 결혼으로 끝을 맺는 것은 전형적인 ‘혼사장애담(婚事障礙談) 통속소설’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김남천의 신문연재소설이 가진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김남천은 「조선문학과 연애문제」(『신세기』, 1939. 8)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대장편소설이나 장편서사시에서 ‘연애’가 중심적인 사상적·도덕적 주제는 아니었다할 지라도 언제나 취급되어 왔으며, ‘일정한 각도로서의 추축(樞軸)’으로서 ‘개성이 소속되

23) 김남천, 「일신상(一身上) 진리와 모랄」, 『조선일보』, 1938. 4. 19, 1, p.354.

어 있는 사회층(社會層)의 사상이나 습관 등의 집약적인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애’를 ‘시대적 특성과 각개 인물의 신분적 속성, 본래의 자태’를 표상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는 김남천의 이러한 시각은 연애소설이라고 하여 단순한 통속소설로 치부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준다. 즉 ‘연애’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며, 이는 “현대의 신문소설의 작가들이 해볼 만한 중요한 일이다.”²⁴⁾

그러나 당시로서는 새로울 수 있는 이러한 시각은 김남천이 연애문제를 통해서 “현대의 ‘모랄’을 탐구하고 현대인의 윤리와 성도덕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연애’를 새로운 구도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서 우리는 김남천이 말하는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시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사랑의 수족관』에서 ‘현대청년’이 가지는 의미

김남천의 문학은 범박하게 말하여 ‘흔들림의 미학’²⁵⁾이다. 이는 전망 부재의 시대에 삶의 불안과 동요를 돌파하려던 그의 머뭇거림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머뭇거림이 있었기에 그의 작품은 재고의 여지를 가진다.

김철은 김광호를 “제국의 주체로서 다시 태어난 인물”로 평가하면서 “온갖 불안과 동요가 말끔히 사라지고 제국의 당당한 주체로

24) 김남천, 「조선문학과 연애문제」, 2, pp.155~158 참고.

25) 노상래, 「암흑기 김남천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8, p.360.

서의 직분의식(職分意識)과 소명(召命)을 자각하고 있는 이 인물에게 부여된 밝고 건강한 이미지에 식민지의 그늘이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²⁶⁾ 그러나 김광호가 제국의 주체였는지는 재고해 볼 문제이다. 물론 그에게 씌워진 이미지는 너무나 ‘건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성만으로 그에게서 식민지의 그늘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김광호는 결코 ‘당당한’ 제국의 주체는 아니었다. 이는 그의 ‘회의주의’적인 성격에서 금방 알 수 있으며, 광호에게 부과된 시대적 이미지는 그의 형 광준이 갖는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광준’은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작품 속에서 급성 폐결핵에 걸려 죽는다. 작품의 전반부에 나오는 광준의 죽음은 지금까지 “신념도 가치도 잃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형 광준의 퇴장과 새로운 기술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동생 김광호의 야심만만한 등장”²⁷⁾으로 읽혀 왔다. 그러나 광준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시사적이다. 작품 속에서 광준은 일종의 ‘생명의 낭비자(浪費者)’이다. 그러나 여기서 ‘낭비’라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수전 손택에 의하면 낭만주의 운동 시기부터 ‘결핵’이라는 병은 많은 작가들에게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조선의 유명한 모더니스트였던 김유정이 결핵으로 죽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 당시 결핵은 일종의 ‘정념(情念)의 질병’이었다. 결핵으로 발생하는 열은 내면에서 일고 있는 격렬함의 신호로, 즉 육체의 소멸을 가져오는, 열정으로 ‘소모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이 쏟는 열정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열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결핵은 열정의 질병으로

26) 김 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김남천과 근대초극론,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p.101.

27) 위의 글, p.99.

찬양되는 만큼이나, 억압의 질병으로 간주되기도 했다.²⁸⁾ 광준의 죽음이 시사적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광준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핵은 열정으로 소모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질병이었다.

이처럼 문제는 이러한 은유가 가지는 의미이다. “영혼의 마비”를 가져오는 동시에 한층 높은 수준의 감정을 충만케 해주는 질병, 결핵의 은유는 심리적으로 좀 더 자각적이고, 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 쓰였다.²⁹⁾ 광준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면 광준에게 결핵은 영혼의 마비가 동반한 심리적 질병으로, 결핵으로 인한 죽음이 안타까움을 넘어 신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급과의 동거생활로 타락한 삶을 산 광준의 죽음이 광호에게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결핵이 단순히 퇴폐적인 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호도 알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광준의 죽음에 이르는 도정이 일정 부분 광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광준이 죽기 직전 동생 광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마치 유언과도 같다. ‘삼십여년의 짧은 생애가 마치 한 세기나 되는 것’ 같다는 말 속에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일대기가 압축되어 있다. ‘더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업서젿슬 때 알마치나의 육체가 살 수 업게되는 것이’ 오히려 반갑고 기쁘다는 언중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굳은 결의도 엿보인다. 광준에게 결핵은 ‘더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에 대한 이별의 레퀴엠이다. 중요한 것은 광준이 스스로 결핵을 불러들인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광준의 죽음이 주는 은유다.

신념에 대한 형의 굳은 결의는 광호에게도 일종의 뿌듯함을 안

28)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pp.27~87 참고.

29) 위의 글, p.44.

겨주게 되는데, 이는 형의 장례식날 현순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 역시 형의 생각이나 생활을 전부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형님이 **까닭없이 방탕한 분이 아니었던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

<...> 『오늘 장례에 오륙 명의 형의 옛날 친구들이 오셨는데, 저두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 **그때의 혈기나 의기는 다 업서지고 지금은 모두 각인각색이었습니다. 각각 직업들을 갖고 생활을 갖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셨겠지요. 형은 끝까지 신념을 다시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³⁰⁾ (강조: 인용자)

김남천은 광호를 통해서 자신들 세대의 신념이 미약하나마 존속하기를 바랐다. 그런 이유로 광호는 ‘흔들리는 미학’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제국의 주체’로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러한 모습은 「길 우에서」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K기사는 ‘나’와 ‘나’의 친구가 사회운동으로 한창 ‘물불을 가리지 못할 때’ 중학교의 상급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적 차이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길 우에서」의 ‘나’에겐 아주 크게 다가온다.

K와 같은 청년은 연세로는 불과 사오년의 차이지만, 우리와는 판세대(世代)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와는 아무런 공통된 사색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다른 개념(概念)과 범주(範疇)를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통하지 않는 술어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 -

하는 생각에 부들리자, 뜻하지 않았던 공포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

(책! 책이 가장 K의 내면생활을 증명할 것이다!) <...>

(혹시 「킹구청년」이나 「강당」의 애독자는 아닐런가?)

30)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 3, 깊은샘, 1987, p. 13(앞으로는 면수만 표기)

그랬으면 하는 생각과, 제에발 그렇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함께 기묘하게 설켜 도는 것 같다.³¹⁾

K기사와의 괴리감은 그에겐 ‘뜻하지 않았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청년들 중에서도 가장 고등인력이라 할 수 있는 토목 기술자 K기사에게서 자신과의 어떤 연결점을 찾고 싶어 하는 ‘나’의 심리, 하지만 결국은 공포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나’의 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K기사와의 연결점을 찾고 싶어 그의 책을 둘러보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과, 제에발 그렇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 함께 기묘하게 설켜 도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K기사에게서 사회주의를 위시한 인도주의는 모두 ‘일종의 센티멘탈리즘’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K기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그에게서 ‘꺾을 수 없는 어떤 신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나’에게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심정의 불안정 상태’, 언뜻 보면 「길 우에서」는 ‘나’ 박영찬이 현대청년 K기사와의 괴리감을 보여준 작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세상에 대하는 근본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현대청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광호에게 투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김남천이 제국적 주체를 꿈꾸고 거기에 맞추어 김광호를 그렸다면 이런 ‘모호함’과 ‘머뭇거림’은 없었어야 했다.³²⁾

31) 김남천, 「길우에서」, pp.233~234.

32) 김광호에게 남아있는 형에 대한 영향은 동생 광신이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서 일어나는 사건을 읽어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학교 담임선생은 광신의 문체가 ‘사상’과 ‘정신’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상’과 ‘정신’이 그의 형 광준과 연관된 것임은 틀림이 없다. 자신의 집안을 통

광호의 머뭇거림은 경희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호는 경희의 자선사업을 두고 힘든 일은 겪어본 적도 없는, ‘아주 화평하게 운택 잇는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별반 어떠한 충격이나 기회도 업시 스스로 타고난 인도주의적인 본능’으로 ‘자기의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한다. 그러나 이경희는 그의 비판을 한 마디로 일축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일종의 센티멘탈리즘’에 불과하다면 광호의 생각은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최소한도의 선(善)’이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대청년은 니히리스트’라고 광호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그러타고 내가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가진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입장에 서서 그러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는 때때로 나의 죽은 형을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형의 사상이나 주의에 공명하지는 안혔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 서고십지는 안흐나 **어딘가 나의 생각에는 형의 영향이 남아잇는 것 가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여하튼 자선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형에게서 바든 유산가치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경희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질의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나는 첫째 직업엔 충실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술에서 일만 눈을 사회로 방향을 돌리면 나는 일종의 께시미즘(悲觀主義)에 사로잡힙니다.³³⁾

틀어 모욕을 주는 담임의 말에 김광호는 ‘가슴에서 무엇이 뿔컸는 것 을’ 느끼며 ‘광신이를 위하여서나 또는 죽은 광준이를 위하여서’도 맞장구를 칠 수가 없다. 더구나 담임이 단도직입적으로 형의 사상을 거론할 때 그는 ‘학교 당국보다도 광신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몽켜 도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물론 광호는 ‘감정대로라면 한바탕 실낱 악담이라도 퍼붓고 시펏’지만 ‘비상한 인레력’을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한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광호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3)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36.

광호는 직분윤리의식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오랜 질병의 뿌리처럼 형의 영향이 ‘유산’으로 남아 있다. 광호는 한 순간도 광준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그늘은 김남천이 소설에서 의도하여 만든 그늘이었다.

예전처럼 커다란 신념을 품을 수 없었던 시대에 김남천은 자신의 ‘부재의식’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했다. 이는 『사랑의 수족관』 연재가 거의 끝나갈 즈음 연재하기 시작한 미완의 장편 『낭비』(『인문평론』, 1940. 2~1941.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낭비』의 주인공 이관형은 「문학에 있어서의 부재의식-헨리 제임스에 있어서의 심리주의(心理主義)와 인터내셔널·시튜에-슌(國際的舞臺)」이라는 제목의 경성 제국대학 강사 채용 논문을 준비 중인 인물이다. 김남천은 「낭비」를 발표하고 있을 당시 「관찰문학소론-발자크 연구 노트 3」에서 ‘헨리 제임스’와 ‘제임스 조이스’에게도 흥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남천은 이들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필생의 업으로 하여 따라갈 지도 원리는 될 수 없”³⁴⁾다는 것을 김남천은 알고 있었다.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이관형은 헨리 제임스를 정복하고 넘어서지 않고서는 자신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는 전환기 일본이 추구하던 대동아공영권론과 근대초극론, 그 연장선에서의 동양주의론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없었던 김남천의 작가 정신과 생활의 불일치,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암담한 정신세계’에 속박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관형에게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다. 즉, 이관형에게 헨리 제임스의 ‘부재의식’은 사회와의 심정적 불화를 극복하고 자신의 세계를 열기 위해 맞닥뜨리

34) 김남천, 「관찰문학소론(발자크 연구 노트 3)」, p.599.

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관문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환기의 부재의식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작품 『낭비』는 『사랑의 수족관』이 아직도 연재 중일 때 연재되기 시작한 작품으로, 김남천이 『사랑의 수족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³⁵⁾

그러나 경희 아프로 잇는 백만원이 넘는 재산이 그들의 생각했던 결혼조건처럼 사회사업단 조직에 쓰이게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 금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청년다운 결백성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의 생각이 실현될려면 만흔 굴곡을 지낸 뒤에 가능할 것이다. <...>

그 뒤 송현도와 은주부인의 흑막은 탄로가 나지 안혔는가.

다행히 아직 폭로가 되지 안혔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악덕이라고 불리워지는 행위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이하게 막으로 폭로가 되지 안는 모양갓다. <...> 아프로 이들과 김광호 이경희의 새에 어떠한 갈뚝이 일어날 것인가—이것을 위하여는 새로운 한 편의 소설이 필요할 것이다.³⁶⁾

위의 인용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으로, 일종의 작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미래를 예측해 주면서도 현실이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 놓은 이러한 기법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는 매일매일 접하는 신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글쓰기 방식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수도 있

35) 같은 인물들을 다른 작품을 통해 여러 번 등장시키는 방법은 김남천 문학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다. 『낭비』에는 『사랑의 수족관』의 청의양장점 마담 ‘문난주’가 다시 재등장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사랑의 수족관』에서는 ‘은주 부인’이 퇴폐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면, 『낭비』에서는 ‘문난주’가 ‘퇴폐와 몰락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6)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79.

다는 장점을 가진다. 독자들은 소설이 해피엔딩이든 아니든 결말이 나길 바란다. 하지만 김남천은 서사적으로는 해피엔딩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열린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해리 하르투니언은 일상이 어떤 존재론적 근거를 갖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열린 결말, 불완전성, 모순, 다중심성 등의 특징을 지닌 실천의 장을 제공한다고 보았다.³⁷⁾ 결국 현실이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은 비판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아무리 ‘청년다운 결벽성이 오랫동안 변하지 안는다고 하여도’ 광호의 결심은 ‘만혼 굴곡을 지낸 뒤에’야 가능하다. 즉 김남천은 제국의 주체로 당당하지 못한, 주저하는 ‘현대청년’의 한 단면을 광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틈새는 김남천의 것이기도 하지만 쉽사리 제국의 그늘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김남천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현실의 부조리와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끊임없이 가능성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김남천의 작가 정신이 제국의 ‘현대청년’이지만 내면적으로 균열을 가진 김광호를 그려낸 것은 어쩌면 당시 도달할 수 있는 작가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을 것이다.

IV. ‘근대자본’의 비판과 ‘몸’의 상관성

1930년대 후반은 근대를 지향하면서도 지양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놓인 공간이었다. 근대는 이제 무조건적인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초극해야 할 대상으로 다시 위치지어진다.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번져 나간 거대한 위기 속에서 근대의 개별화·자율

37) 해리 하르투니언, 『역사의 요동』, p.50.

화의 이념은 공허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 근대의 대표적 이상이었다고 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등은 그 권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아니 적어도 근대의 규범적 개념 배후로 물러나 있었던 가치와 이념들이 전경화되었다. 이는 일본의 ‘근대초극론’³⁸⁾ 논의에서 스즈키 시게타카(鈴木成高)가 “근대의 초극이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의 초극, 경제에서는 자본주의의 초극, 사상에서는 자유주의의 초극”이라고 말한 바에서도 뚜렷하다.

그러나 이처럼 근대를 초극해야 한다는 인식 기저에는 현재가 전환기라는, 즉 근대에 대한 공포와 부정 심리의 논리가 깔려 있다. 이에 입각한 근대비판은 근대라는 현재를 몰락, 종말, 퇴락의 순간으로 파악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나름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근대는 시간적으로는 종말을 향해 가는 것으로, 공간적으로는 타락한 ‘서구’로 분명하게 설정된다. 이때 사회주의자였던 김남천에게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근대 자본’의 문제이다.³⁹⁾ 즉 그

38) ‘근대초극론’은 1942년 7월 23일과 24일 일본의 잡지 『문학계』에서 열린 <근대의 초극> 좌담회(1943년 7월 創元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이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유행어 였던’ 동시에, ‘대동아전쟁과 연결되어 상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심포지움을 가리킨다.

39) 김남천이 발자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본’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김남천은 ‘발자크 연구 노트’라는 부제를 달고 발자크에 대해서 『인문평론』에 4회에 걸친 글을 실은 바 있는데, 그 시기를 보면 이 글이 『사랑의 수족관』과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남천은 발자크가 가진 최고의 명석성으로 그가 ‘화폐의 위력’을 궁극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화폐의 위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 발자크가 사용한 인물형상화 방법, 즉 ‘퇴폐한 국민 전체의 전형성’을 그리는 ‘치밀한 묘사’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김남천이 형상화한 ‘근대 자본’의 문제를 읽는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남천, 「고리오용」과 부성애·기타-발자크 연구 노트 1, pp.523~532,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발자크 연구 노트 2)-「오늘은·그랑데」에 대한 일고찰

에게 초극해야 할 서구의 근대는 ‘자본의 근대’인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의 수족관』에서 ‘자선사업’에 대한 김광호의 인식은 작가 김남천의 ‘허무주의’를 설명하는 데만 집중되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광호가 ‘자선사업’을 말할 때,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으로 해오는 그런 자선사업’이라는 발언은 복잡한 문제들을 담지하고 있다.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자선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책이 아니며 이러한 방식은 김남천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에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물론 사회주의 사상가가 ‘자본주의’를 비판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비판의 기저가 ‘자본’이라는 속성이 가지는 불평등함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김남천은 『사랑의 수족관』을 통해서 ‘자본의 근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작품이 제목과 소제목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음은 이젠 거의 정설이 된 듯하다. 이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세계를 물고기가 사는 ‘수족관’과 ‘부어(鮪魚)가 사는 세계’라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물고기의 근하신년(謹賀新年)’이라는 부분은 ‘부어가 사는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이신국 일가의 새해맞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새옷을 입고 모두 안방으로 모여라——이러케 분부를 내린 이신국 씨의 누이, 이집의 단하나의 어른은 양단 힌저고리에 역시 하이얀 한이단치마를 입고 아랫목 보료우에 점잔히안자서 조카 딸들과 조카며누리가 눈부시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내고저 이 방안에모여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덕히가 치던 『피아노』가 멎었다. 문박계서는 비단이 쏠리는

—, pp.546~557, 「관찰문학소론(발자크 연구 노트 3)」, pp.590~599,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4)–속·관찰문학소론–」, pp.600~610 참고.

소리가 가벼운발자취에 석겨서 들려오고있다.⁴⁰⁾

이신국의 가족이 일제의 정책을 따라 음력설이 아닌 양력설을 치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모습은 결코 당시 일상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1%의 일상인 것이다. 그러나 1%의 일상은 ‘자본의 위력’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김남천은 이러한 ‘자본’의 위력을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즉 ‘몸’을 빌어 ‘근대 자본’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이다.

『사랑의 수족관』을 연재 중이었던 1939년 11월에 김남천은 『인문평론』에 「T일보사」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인공 ‘김광세’는 『사랑의 수족관』의 ‘송현도’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그 성격이 아주 유사하다. ‘성공해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라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는 광세와 ‘성공만 하면 그곳까지 이르는 과정이 아무리 더럽고 추잡해도 모든 것은 아름다운미덕(美德)이 된다’고 생각하는 현도는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닮은꼴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김남천이 「T일보사」에서 김광세를 묘사하고 있는 방법이다. 머릿속으로 수 십 번 성공하리라 외치는 김광세는 사람의 외양이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사에서 부사장을 처음 만난 날 광세의 눈에 비친 부사장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사장이다. 사실 부사장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흑갈색의 양복 위에 수달피 가죽을 달은 낙타외투를 걸치고, 알린 알린하는 구두에 털이 부르르한 회색 모자를 쓴 얼굴에 금테안경을 붙여 놓고, 가죽장갑을 낀 손에 꺼먼 가방을 들고 점잖이 들어서면, 그것은 첫눈에 벌써 어김없는 부사장’이다. 그런 부사장 앞에서 광세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광세 또한 권력을 얻기 위한 첫 발판으

40)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55.

로 자신의 외모부터 가꾼다. 이처럼 ‘몸’을 통해 ‘자본의 위력’과 그 사람의 권력을 묘사하는 방법은 『사랑의 수족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쾌하게 양복을 입고 『토—크』래도 쓰고 거리우에서 나서면 그의 위외에는 어딘가 침범할수업는 그런 위엄스귀가 잇서 보인다. 그러나 연연한 비단으로 우리 옷을 몸에 두르면 비선우에 감기는 긴 푸른치마의 정서처럼 그는 역시 빈틈잇는 아리따운 색씨에 지나지 안는다고—이것이 그의 서모 은주의 관찰이다.

사실 은주는 양장한 경희를 대하면 어디서 오는것인지 알수업는 위압을 느끼어서 말가튼것도 순서 잇게 건느지를 못하는 저자신을 발견하곤 하였다. 그러나 경희가 이러케 남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흰버선을 신으면 그것은 벌써 은주에게 잇서서는 하나의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⁴¹⁾

서모 은주부인에게 비친, 양장과 조선복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경희의 모습은 아주 흥미롭다. ‘의복’은 단순히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미지와 위계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의복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한 인물의 ‘몸’의 묘사가 단순히 외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상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몸’의 형상화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방법인 것이다. 『사랑의 수족관』에서도 마찬가지다. 김광준의 ‘몸’이 부조리한 사회에 의해 ‘병든 몸’이라면, 광호는 그에 비해 ‘건강한 몸’으로 묘사된다.

광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비슷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건강성’이다. 특히 ‘강현순’이 광호의 첫

41)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56.

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광호가 어떤 이미지를 가진 인물 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그녀는 광준의 병원에서 광호를 보고 첫눈에 그의 ‘건강함’을 알아본다. 그는 광준과도, 그의 동생 광신과도 다르다. 광준에게서 그녀가 느꼈던 인상은 ‘불건강하고 퇴폐적인’ 것이었다. 그에 비하면 광신은 ‘몸도 건강하고 두뇌도 형을 닮아서 명석한 것 같아도 아직은 이러니저러니’ 평론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광호는 ‘광준의 형제가 갖는 얼굴의 특징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면서도, 그것이 균형이 잡힌 몸집과 옷매무시와 어울리게 조화를 이루어서 현순이의 눈에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청년의 모양으로 느껴지’고 있다.

광호의 몸에 대한 첫 이미지는 광호의 연인인 경희의 눈에도 현순과 그리 다르지 않다. ‘넓은 관골이 그득찬 이마를 가진’ 광호의 얼굴은 조금 타서 더 건강해 보인다. 거기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하는 청년의 표정이 어리어서 공감하기 쉬운 젊은 여자의 민감한 신경’에 ‘가벼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매력까지 있다. 그러나 광호는 『T일보사』의 광세가 본 부사장과는 또 다르다.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건강성과 부합되는 인물이다.

-내가 김광호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건강한 용모와 그의 언어와 동작에 반한 때문일 것이다. 언어와 동작에 나타난 것- 그것은 그의 취미요 그리고 교양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광호를 보고 첫눈에 그의 학력을 직감해 버린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
-

(나는 그가 최고학부를 나온 청년인 걸 그의 이력서를 보기 전에 그의 몸가짐에서 알아보았다.)⁴²⁾

42)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32.

위의 인용문은 광호의 ‘현대청년’다운 매력이 단순히 외양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김광호에게는 ‘건강한 용모’뿐만 아니라 ‘언어와 동작’ 등 모든 것에서 그의 ‘교양’이 드러난다. 이렇듯 김남천은 광호에게 ‘건강한 육체’를 부여함으로써 ‘현대청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행동만큼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다. 문제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섹슈얼리티’라는 점이다. 야심에만 가득 찬 송현도의 성격은 은주부인과 퇴폐적인 놀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되며, 브로커 짓을 일삼고 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신일성은 조카뻘 되는 강현순을 탐하려는 모습을 통해 형상화된다. 그들의 ‘몸’은 ‘불건강’할 뿐 아니라 ‘퇴폐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광호는 잠깐 흔들릴 망정 은주부인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소리가 가지고 있는 교태와 그리고 약간 떨리는 듯한 음성’에 어떤 위기를 느꼈다고 해도 그것은 한 순간의 감정일 뿐이다. 오히려 광호는 어떤 상황에도 연인 경희를 걱정하는 ‘교양 있는’ 인물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재현의 과정은 언제나 불평등하다. 강상중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할 때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도식적으로 말해서 ‘보는 쪽’=‘대표하는 쪽’=‘보호하는 쪽’과 ‘보이는 쪽’=‘대표되는 쪽’=‘보호받는 쪽’의 이항대립 관계라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도는 성차별에 사로잡힌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실제로 성차별을 은유화하는 사례는 많다고 지적한다.⁴³⁾ 수많은 여성주의 문헌들이 보여주듯이 ‘자아’와 ‘타자’ 사이의 차별적 관계는 빈번히 성에 의해 표현되었다. 이렇게 젠더화

43)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p.89.

된 관계는 이어서 성적인 은유로 재현된다.⁴⁴⁾ 근대의 병폐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신여성’이 끊임없이 담론으로 작용했음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근대 자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여성의 ‘몸’만큼 유용한 것도 없었다.

김철은 『낭비』를 통해 김남천의 ‘부재의식’을 설명하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퇴폐와 몰락의 상징’인 ‘문난주’를 위시한 ‘최옥엽’ ‘백인영’ 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⁴⁵⁾ 규범과 심정의 분리는 생활의 차원에서는 습속의 어지러운 혼란과 동요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공허와 불안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야말로 김남천이 말하고자 하는 ‘부재의식’을 구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별의 위계화’가 놓여 있다.⁴⁶⁾ 『낭비』에서 문난주가 대표적인 ‘퇴폐와 몰락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사랑의 수족관』에는 은주부인이 놓여 있다.

문난주가 그랬듯이 은주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문제이다. 송현도에게 욕망은 권력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경희와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은주부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지만 은주부인에게 욕망은 어떤 면에서는 권력보다도

44) 이해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1920~30년대 소설의 섹슈얼리티, 젠더, 계급-」,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2, p.276.

45)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 pp.85~91 참고.

46)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임순은 “자기의 서벌턴화와 차등화된 여성의 물질화”라고 명명한다. (공임순, 「자기의 서벌턴화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이념형-‘전향’과 김남천 소설」, 『상허학보』 제14집, 상허학회, 2005, pp.80~94 참고.) 공임순은 또 다른 글에서 『낭비』의 문난주는 “이관형의 열패감을 대리하고 투사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난주의 육체적 전시는 문난주 자체가 아니”며, “‘퇴폐적이고 불건강한 자의 대표자’로 호출하고자 하는 이관형의 욕망이 투사된 자기애적 이미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임순, 「식민지 시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6, p.21.

더 앞에 놓여 있다. 송현도를 정부로 두고 있음에도 광호에게 욕정을 느끼고 경희를 질투하는, 그러면서도 이신국의 그늘에 있려는 그녀의 본성은 급기야 광호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하지만 광호는 오히려 그녀의 ‘얼굴생김새, 옷매무시, 말하는 투, 태도와 몸가지므로보아, 젊은부인의 전신(前身)이 무엇이었든가’ 눈치를 채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있다. ‘건강한’ 눈에 비친 은주부인은 퇴폐의 온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 속 모든 여성이 퇴폐의 온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문제시 되는 것은 이경희의 ‘몸’이 가지는 의미이다. 사실 이경희를 불건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작품에서 이경희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않으려 하며, 건강한 현대청년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강한 성의식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이다.

경희는 팔을 가슴우에 걸어보았다. 스물네살의 그의 양가슴이 제 팔에 눌리어도 탄력에 쫓긴다. 가슴은 내려 누르는 팔두시를 밀어 버릴 듯이 몸 부림친다. 야릇한 쾌감이 흥분에 석겨서 얼굴로 올라 빠친다.

그는 팔을 풀어 노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손대어 본적이 없는 두개의 유방이 해방된 생선처럼 『과자마』 안에서 출렁거렸다. <...>

그러나 그는 병그레 웃었다.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환희에찬 흥분을 그는 어떻게 할수도없는 것이다.

<...> 그것은 건강한 나의 정신의 명령이다! 아름다운 나의 육체의 욕구다! 처녀만이 향락할수있는 가장 고귀한 권리다!47)

광호를 떠올리며 자신의 몸에 타오르는 ‘환희에 찬 흥분’을 경희는 ‘건강한 나의 정신의 명령’이며 ‘아름다운 나의 육체의 욕구’라고 말한다. ‘처녀만이 향락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경희가 김남천의 시선에서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이경희의

4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21.

‘건강성’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⁴⁸⁾ 결코 퇴폐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녀의 밝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식민지의 그들로 느껴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강현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현순을 처음 본 경희는 그녀를 통해서 ‘직업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고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백화점의 『숍걸』이나 전화교환국의 교환수나 『빠스걸』이나 혹은 강현순이 가튼 양재사나, 『타이피스트』나 그러한 직업녀성’, ‘그전날에는 볼 수 없던 중간층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생활태도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는 ‘건설한 직업부인’에 대한 흥미는 ‘막연한 동경과 선망’이라는 용어가 시사하고 있듯이 결코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김남천은 일찍이 단편 등을 비롯한 작품들을 통하여 하층민 여성들, 특히 여급이나 카페걸, 기생과 같이 시대의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는 『사랑의 수족관』에서 이경희가 ‘어떠한 시대일지라도 제의 직업에 충실하여 건강한 희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생각’된다는 언급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이 동정의 시선이었던 아니든 이러한 흥미는 중간층의 여성들, 특히 직업여성들에게 옮겨갔고 강현순은 김남천이 생각한 전형적인 ‘건강한 직업여성’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⁴⁹⁾

48) 이경희의 ‘몸’은 해방 이후 김남천의 장편소설 『1945년 8·15』를 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때 이경희의 ‘몸’은 변화된 시대 상황과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김남천이 시대의 비판의식을 여성의 ‘몸’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야 될 부분이다.

49)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경영」, 「맥」의 ‘최무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무경 같은 경우는 김남천의 자기식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나타난 형상으로서 강현순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노상래,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자기식민화 양상과 근대초극론」, 『현대문학』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언제나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현순은 경희의 제안으로 그녀와 함께 탁아소 사업을 준비하게 된다. ‘오륙년 동안 생활의 전부이던’ 재봉사의 삶을 버리고 ‘새 생활’의 꿈에 부푼 그녀는 더구나 자신이 ‘가난하나 순진한 어린 동심’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때 더욱 영광스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순은 경희와 자신이 얼마나 다른가를 체감하게 된다. 경희에 의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직업을 바꾼다 해도 현순은 경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계획과 설계가 단시일안에 아무런 장애도 업시 이루어진다는 것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이경희의 아름다운 이상과 면밀하고 치밀한 두뇌가 아니고는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이경희의 배후에 있는 것** 이경희의 설계에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그것은 틀림없이 황금정에 있는 『크림』 빛갈의 육중한 사층건물 저—일천만원 『대홍콘체른』이 아니냐!⁵⁰⁾

이경희가 가진 것,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이상과 면밀하고 치밀한 두뇌’ 뿐만이 아니다. 즉 ‘자본’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힘이다. ‘일용품 한 가지 심지어는 찬거리 한 가지를 사는데도 오랫동안 망설이고 주저하다가야 지갑을 여는 현순’과 경희의 차이는 바로 ‘자본’에 있다. ‘십오만원—그것을 엇기에’ ‘이경희는 하룻저녁 저 이 아버지와 조선「호텔」에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경희가 가진 ‘무서운 실행력’, ‘실행의 원동력’은 바로 ‘황금정에 있는 『크림』 빛갈의 육중한 사층건물 저—일천만원 『대홍콘체른』’이라는 실체였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현순은 자신을 ‘이상한 이방

이론연구』 제33집, 2008, pp.297~324 참고.

50)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p.50.

인'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⁵¹⁾

현순은 사랑도 쟁취할 수 없다. 짝사랑의 상대였던 광호도 이경희의 소유이다. 문제는 이때 현순의 사랑은 경희의 그것과는 또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만큼 육체적으로도 환희와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희에 비해 현순은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여성의 성격이 판이함을 보여주면서도 작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현순은 단 한 번도 처녀인 경희처럼 '환희에 찬 흥분'을 느낄만한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순결'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신일성에게 농락을 당하고 자신의 처녀성이 의문시 되자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나쁜 사과라게 질리고 입술은 경련에 떨고' '복바치는 우름이 노염에 질리어서' 결국엔 앞에 놓인 상을 아무렇게나 걷어 차버린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다. '나는 처녀다...어엿한 처녀다!'라고. 현순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에 신일성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순결성이 의심되었다는 데에 있다.

식민지 문학에서 종종 여성의 '몸'은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상징적인 메타포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 여성의 몸, 특히 겁탈된 몸은 잃어버린 민족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물론 『사랑의 수족관』의 강현순을 그러한 의미로 보는 건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만큼 김남천이 현순의 순결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이는 작가가 은주부인이나 이경희

51) 사실 이러한 '거리감'은 현순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경희의 애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간 광호는 생각한다. '이경희는 이집의 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일까? 확실히 그는 이집주인의 딸인가?' 김광호는 '이런 생각을 되풀이 하면서' '어딘가 자기자신이 이러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것가튼 거리감(距離感)을 느끼지 안홀수가 업'다고 생각한다.

와 다른 대척점에 강현순을 두고 싶어 했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수족관』에서 ‘근대 자본’에 대한 비판은 ‘몸’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띠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의 ‘몸’이 ‘건강성’과 ‘퇴폐성’으로 양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으로 양분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때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인 김남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배치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의 신체를 강박적으로 읽어내는 김남천의 시선은 앓의 시선이 된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⁵²⁾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V. 결론

일상성은 일상적 현실을 살아가며 일상성이 기술한 역사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일상성이란 일종의 불안한 ‘요동(disquiet)’이며, 중단된 순간이다. 그것은 새로운 현재이며, 전통에 폭력적으로 끼어들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선과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하나의 ‘역사적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일상성의 지금이 지닌 현실성의 근거와 힘은 부정적 일상성이 은폐한 비판과 재생의 가능성들을 드러낼 수 있다.⁵³⁾

『사랑의 수족관』에서의 일상은 누구의 일상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물고기의 근하신년’이라는 소제목을 딴 부분에서 이 신국의 집안사람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막

52)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p.41.

53) 해리 하르투이언, 『역사의 요동』, p.77.

내 ‘덕희’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다. 당시 일반인들은 구경도 하기 힘들었을 ‘전유어, 구이, 적, 회, 포, 정과, 강정, 다식, 신선로, 포도주’ 등의 음식들이 ‘꽃밭처럼 화려한’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있다. 1%의 일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김남천은 왜 그리도 상세히 보여주고자 했을까.

일찍이 르페브르가 일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가 첫째로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일상생활의 소외 문제였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칭하는 ‘소비 사회, 풍요 사회, 여가 사회’ 등과 같은 명칭들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⁵⁴⁾ 그러나 문제는 이때 소외되는 계층은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이경희가 가진 것, ‘크림 빗갈의’ ‘대홍콘체른’이라는 실체를 보며 소외를 느끼는 것은 강현순이라는 일반 노동자 계급이다. ‘소비’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상상 속에서의 소비와 현실에서의 소비 사이에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김남천의 탁월한 리얼리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김남천이 끝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리얼리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자기의 문제보다 대상을 관찰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자기를 무(無)로 하여 대상 가운데 침잠하는 것”⁵⁵⁾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발자크의 영향에 힘입은 ‘관찰문학론’의 단초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제반 모순을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하여

54)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pp.260~261. 앙리 르페브르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대해서 처음으로 그 중요성을 깨달은 이들이 마르크스 주의자였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자본주의에 의한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김남천이 보여주고자 했던 일상은 다름 아닌 근대 자본에 의해 침윤된 ‘일상’인 것이다.

55) 김남천, 「체험적인 것과 관찰적인 것(발자크 연구 노트 4)」, p.601.

묘파하는 데 리얼리즘의 본령을 둔 김남천의 신념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곡되고 타락된 개인주의의 망령들을 하나하나 소환하되 “자기의 날카로운 통찰안만을 가지고서 대상의 결합의 근원 속으로 몸을 던져버릴 것”⁵⁶⁾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자기를 무로 하여 대상 가운데 침잠’하고 ‘대상의 결합의 근원 속으로 몸을 던져’ 버리겠다는 김남천의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제국의 현실에 ‘침잠’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미래적인 현재’를 꿈꾸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새로운 역사 진행의 원리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어떤 노선으로도 찾아질 수 없는, 양자를 뛰어넘어 ‘서양적’ 근대를 벗어나는 지점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점이 바로 “제국 서사와의 결합점”⁵⁷⁾이기도 했다는 것은 시대적 아이러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남천의 문학을 ‘신체제’에 적응해 간 문학으로 단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이 시기 김남천의 리얼리즘론은 당대 담론의 일방적인 침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김남천은 그가 193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이른바 소설의 위기 극복이라는 문학적 과제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리얼리즘을 제창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 3, 깊은샘, 1987.

56) 위의 글, p.602.

57) 김예림, 「1930년대 후반 몰락/재생의 서사와 역사기획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권 제2호, 2002, 10, pp.199~200.

- _____, 권영민 외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2, 태학사, 1988.
 _____, 권영민 외 편,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3·4 태학사, 1988.
 _____,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 1·2, 박이정, 2000.

2. 논문

- 곽승미, 「인식적·미학적 원리로서의 근대성 김남천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p.16~152.
 김 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김남천과 근대초극론」,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pp.62~104.
 노상래, 「근대초극론, 아직 끝나지 않은 공영권 총력전」, 『동아인문학』10, 동아인문학회, 2006, pp.733~766.
 _____, 「암흑기 김남천 소설 연구」, 『우리말글』37, 우리말글학회, 2006, pp.337~363.
 _____, 「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초극하기—김남천의 경우—」, 『일본문화연구』22, 동아시아일본학회, 2007, pp.59~79.
 _____,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자기식민화 양상과 근대초극론」, 『현대문학이론연구』33, 2008, pp.297~324.
 박형준,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일상 재현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35~81.
 이혜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 『상허학보』8, 상허문화회, 2002, pp.269~293.
 _____, 「남성적 질서의 승인과 파시즘의 내면화」, 『현대소설연구』1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pp.279~298.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p.104~138.

3. 단행본

- 강상중, 이경덕 외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pp.77~134.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pp.15~124.

- M. 마페졸리 · H. 르페브르 외, 박재환 ·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편, 『일상 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pp.44~65.
-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예크리, 2005, pp. 42~340.
- 조지 모스,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pp.9~323.
-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 · 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pp.24~247.

A Study on the Fill up a Gap on the Real and the Ideal

- Focused on the Kim Nam-cheon's 『An Aquarium of Love』 -

Son, Mi-Ran · Roh, Sang-Rae

Serial newspaper novel “An aquarium of Love” by Kim, Nam-cheon, bearing an epoch meaning of transitional period, is an important piece which portrayed the window of possibility advocated by the author. Recently, this novel has been appreciated by readers with new perspective and focus on theme: problem with everyday life in literature.

Much attention is given to the main character of “An aquarium of Love” Kim, Nam-cheon and his conflicting feelings and hesitation during the period after the Sino-Japanese war. Transitional period with opposing views of idealism and reality shares a common ground owing to the previous debates on rising of Kim, Kwangho and falling of his brother Kim, Kwangjoon and its endless tensions. Carefu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fact that these tensions are part of everyday ordinary life.

In the midst of encouraging and discouraging of modernism, what Kim, Nam-cheon criticized was modern capital that was commonly introduced through body of a character in his works. However, this body was divided between wellness and illness as well as male and female.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ose who praised everyday ordinary life during the times when everyday life in literature wasn't acknowledged were followers of Marxism. To those followers understanding everyday life of labor and solving its fundamental problem were their tasks as everyday life is the most essential element in reformation. Especially everyday life neglected in result of capitalism was great concern. This also can be found in detailed description of 1% of life that can not be said common in works of Kim, Nam-cheon in observation and accusation of corruption of capital through effect of Balzac.

Key words : Everyday life in literature, Everyday ordinary life, body,
Sexuality, wellness, illness, Modern capital

손미란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학교) 053-810-2110, 핸드폰: 010-5055-7067

전자우편: sfsfs1004@hanmail.net

노상래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소: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학교) 053-810-2117, 핸드폰: 010-9812-8674

전자우편: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08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